

## 자연내 관찰(황새)과 실내 관찰(황새 병아리) 결과

- 1 **지자체명** 하바로프스크 지방
- 2 **발표자명 (소속명)** 시덴코후 마키심(Sidenkov Maxim)  
제 5 아무르스크 시립 종합학교 8학년  
「내츄럴리스트」 아동 환경·생물학 센터의 멤버
- 3 **활동명** 자연내 관찰(황새)과 실내 관찰(황새 병아리) 결과
- 4 **활동 기간** 2004년 5~7월
- 5 **활동 장소** 국립자연보호구역 「발로니스키」 내
- 6 **활동 참가인원** 10명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황새 일·러 공동보호번식연구조사에 있어서 국립자연보호구역 「발로니스키」 내 키르프호수 주변 등지에 살고 있는 황새 두마리의 야외관찰과 황새 병아리 두마리의 성장을 실내에서 관찰

### 8 발표 요지 (도표 포함)

2004년에는 황새 일·러 공동보호번식연구의 제3회 조사가 실시되어 일본의 (효고현) 도요오카시 「황새의 집」 센터에 하바로프스크지방의 「내츄럴리스트」 아동환경·생물과학센터내에서 자란 황새 병아리 2마리가 기증되었다.

자연보호구역내에서 야외 관찰을 한 결과 황새가 교대로 등지를 계속 지키고 있는것을 보았으며 이의 원인은 꽤 낮은 기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식사는 교대로 하는 것 같았으나 직접 확인은 못했다.

제16번째 등지에도 같은 현상이 확인되었으나 등지가 관찰지점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모니터링은 어려웠다.

2004년 6월 슈엔마을 주변의 토지에 있던 등지안에 황새 병아리 4마리중, 제일 몸이 약한 2마리를 2개월간 「내츄럴리스트」 아동 환경·생물과학센터에 가져 와서 키웠다. 육성하기까지의 성공 과정은 측정이나 과학적인 테스트에 의해 확인되었다. 육성기간중 황새 병아리는 활발하고 순조롭게 성장해 나갔다. 실내 사육 기간중에 장내에 약간의 미생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황새 병아리의 성장에는 지장이 없었다.

### 관찰 결과

2004년 봄에 실시된 등지의 야외 관찰에 의해 국립자연보호구역 「발로니스키」 내 황새의 고체균의 현상은 보통이었다고 판단되었다.

아무르강 지역의 황새 수의 감소 원인은 삼림 화재에 의해 등지를 만들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화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과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보고된 황새 병아리의 실내 사육 방법은 일본이나 아무르강 지역에서 현재 감소되고 있는 황새 병아리를 실내에서 키우면서 지키고 또 고체균의 수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확인되었다.

일본 측에 전해준 황새 병아리는 일본에 잘 도착하여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 있으며 실내 증식을 위해 사육될 예정이다.